

陰陽合德思想의 現代的 意義

李恒寧*

目次

I. 서론	
II. 思想의 背景으로서의 風土	2. 社會的 展開
III. 陰陽사상·獨斷사상·辨證法사상	3. 人間的 展開
IV. 陰陽사상의 特性	VI. 陰陽合德 思想의 現代的 意義
V. 陰陽合德 思想의 天地人的 展開	1. 觀念論과 唯物論의 調和
1. 自然的 展開	2. 對立 鬪爭觀의 止揚

I. 서론

大巡眞理會는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을 宗旨로 한다.

大巡思想論叢 제1집에서 鄭大珍 大眞大學校 이사장은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제언」에서 「陰陽合德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 이상향의 삶의 원리」라고 하고 「이는 이때까지의 相克의 원리에 대신하여 오늘의 위기를 구하는 相生의 원리요 對待性的의 원리」라고 하였다.

「相生은 陰과 陽이 相生으로 呑해지는 것이요 이는 相克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이요 對待는 陰과 陽의 관계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은 관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相生은 요즘말로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는 共存이요 對待는 요즘말로 相補인데 陰陽合德이란 陰陽이 共存하고 陰陽이 相補하는 가운데 人間이 생존하고 社會가 존속되며 宇宙가 운영된다는 陰陽의 原理이다.

이 陰陽 사상은 하필 大巡思想의 근본일 뿐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상이며 나아가서는 東方人 전체의 공통사상이기도 하다.

서방인 들은 음양사상 대신에 辨證法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변증법사상은 만물은 서로가 대립되는 것이요 그 대립은 투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우리는 어찌하여 東西의 사상이 이와 같이 달라졌나하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I. 思想의 배경으로서의 風土

대체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해나가는 동안에 그 생활에 관해서 생긴 意識構造이다. 우리의 생활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自然環境이다. 모든 生物은 그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에 적합하도록 생활양식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상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 자연환경은 요즘 風土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상의 모태는 곧 風土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東方에는 風水地理사상이 있다. 風水는 「藏風得水」에서 온 말인데 바람을 간직하고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생활하기가 좋으므로 名堂이라고 하고 그 명당에 國都나 住居나 墓地가 있으면 국가나 가족이나 자손의 운명도 좋다는 사상이다. 그 風水사상은 본래 中國에서 발생하였다.

風水사상은 郭璞의 錦囊經, 葬經에서 유래되는데 錦囊經은 漢代의 青烏經이 그 原典이다. 中國의 風水 사상이 신라 말에 道詵에 의해 우리 나라에 유입되고 고려조에서 번성하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크게 유행하였다. 經國大典중에도 禮典陰陽科의 시험과목에 地理科가 있었고 그 지리과에서는 青烏經과 錦囊經을 주된 교재로 하였다.

우리의 風水사상이 讖緯說과 결합하여 무슨 秘訣이니 鄭鑑錄이니 格庵遺錄이니 하는 緯書들이 나와 豫言의 구실을 하였으나 그 때문에 風水사상은 迷信化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自然과 人間과의 相關關係를 따지는 風水사상은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李重煥이 八域誌에서 地勢와 人心의 관계를 논한 것은 이직도 흥밋거리로 되어있다.

우리의 風水사상은 오늘의 風土사상의 선구를 이룬다. 自然과 人間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風土사상은 오늘의 環境문제와도 결부되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自然과 人間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하필 東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양에서도 醫學의 祖인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460~377 B. C)는 風土가 人間에 주는 영향을 연구했고 近代에 들어와 보당(Jean Bodin 1530~96)과 몽테스큐(Montesquien, 1689~1755)도 風土에 언급하였다. 보당은 인간의 행위는 자연적 소질에 규정된다 했고 몽테스큐는 인간의 육체적 물질에 대한 風土의 생리학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 헤르델(J. G Herder 1744~1803)은 인간의 감각도 풍토 적이요 그 상상력도 풍토 적이요 그 실천적 이해도 풍토 적이요 그 감정과 충동도 풍토 적이요 그 행복도 풍토 적이라 하였다.

헤겔(G. W. Hegel 1770~1831)은 세계사의 지리적 근거를 추구하여 세계를 草原과 平野와 海岸의 3自然類型으로 구분하였으며 맑스(K. Marx 1818~83)가 경제발전단계를 설명하면서 아세아적 停滯性을하고 歷史와 風土의 관계를 말했다.

또 最近에 발달한 地政學이란 학문은 地理와 政治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風土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風水사상을 迷信視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風土사상이나 環境理論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Ⅲ. 陰陽사상 · 獨斷사상 · 辨證法사상

陰陽사상의 배경이 되는 東方의 風土적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地球를 관찰할 때 거기에 세 가지 風土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季節風的 風土 지대요, 둘째는 大陸性的 風토지대요, 셋째는 海洋性的 風土지대이다.

첫째의 계절풍적 風土는 태평양 인도양으로부터 다량의 雨氣와 북방대륙으로부터의 冷氣가 계절적으로 교체되는 지대인데 이에선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인도 등이 포함된다. 이 지대의 특성은 그 濕潤性이 있고 따라서 農耕생활에 적합한 생활기반을 이루고 있다.

둘째의 대륙성적 風토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대체로 雨氣가 적도의 사막과 초원이 연속된 지대인데 이에선 중동을 위시하여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티벳 몽고 등이 속한다. 이 대륙성적 風토의 특색은 그 乾燥性에 있고 따라서 농경보다는 遊牧생활에 적합한 생활기반을 이룬다.

셋째의 해양성적 風토는 지중해와 대서양의 임해있는 지대인데 이에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이 속한다. 이 해양성적 風토의 특성은 그 溫和性과 교통의 편리성에 있는데 그런 까닭에 이 지대는 농경생활이나 유목생활보다도 商業생활에 적합한 생활기반을 이루고 있다.

동방의 계절풍이 가져오는 습윤성은 식물의 생장을 완성케 하는 자연의 큰 혜택이 된다. 이 지대에 농경생활이 발달한 것은 이 까닭이다. 특히 하천유역의 비옥한 땅은 농경에 적합하므로 한국에 있어서는 漢江, 大同江, 洛東江의 유역에, 중국에 있어서는 황하와 양자강의 유역에, 인도에 있어서는 겐지스강과 인더스강의 유역에서 농경문화가 개화되었다.

동방문화는 농경생활의 반영으로 자연 順應的이다. 자연의 혜택으로 산다고 믿는 동방인 에게는 자연은 완전하고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어 모든 자연을 숭앙의 대상으로 하여 汎神論的 종교사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동지대의 사막과 초원의 건조성은 아무런 혜택도 없는 오직 자연의 위협일 뿐이다. 중동지대에서는 동방지대와 같은 정착적인 농경생활과는 달리 水草를 따라 옮겨 다녀야 하는 유목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연과 투쟁하여야 하는 반항적 생활 양식으로 동방의 자연 순응적 태도와는 다르다. 항시 자연환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이동하여야 하는 유목 생활에는 신속한 이동태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생활을 강화하여야 하며 집단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중심에 대한 중심점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 때문에 지도자를 절대시하는 祭政一致의 一神論的 종교사상을 발생시켰다.

서방의 해양성적 풍토에 있어서는 먼저 地中海라는 커다란 交通路가 인간의 왕복을 활발하게 만들어 일찍부터 해외로 응비하여 貿易과 商業이 발달되었다. 동방의 농경생활이 自然에 순응하는 家族的 생활양식이요 中東의 유목생활이 自然에 반항하는 部族的 생활양식임에 반하여 西方의 상업생활은 자연의 순응할 필요도 없고 자연에 반항할 필요도 없이 오직 商業上的 필요로 인간을 상대하게 되었고 그 인간성의 多樣性에서 多神論的 사상을 형성하였다. 동방사상의 특성은 그 自然順應的 汎神論에 있고 中東思想의 특성은 集團主義的 一神論에 있고 西方思想의 특성은 그 人間中心的 多神論에 있다. 東方은 自然主義요 中東은 集團主義 또는 社會主義요 西方은 人間主義인데 地球風土의 차이로 지구상에는 인류가 문명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미 세 가지 生活原型을 이루고 있었다.

자연의 혜택으로 사는 것으로 믿는 동방인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그 자연속의 이치를 깨는데 주력하였다. 동방에서 일찍부터 自然哲學인 『易의 哲學』이 발달되고 易의 철학은 太極 陰陽思想으로 체계 지어 졌다. 중동에서 일찍부터 종교가 발달되고 絶對神의 관념이 확립한 것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超越的인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서방에서 일찍부터 인간을 중시하여 인간성의 고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인간성의 내부에까지 파고 들어가 인간의 利己性을 깨닫게 되었다.

동방의 자연사상은 萬物이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순응하는 것이 생활철학이다. 모든 것을 관찰하면 반드시 陰陽兩氣로 이루어져서 陰陽兩氣가 조화되면 天地가 평화롭고 사회가 평화롭고 가족이 평화롭고 개인도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만일에 천지사이 음양이 고르지 못하면 天變地異가 생기고 국가나 가족에서 음양이 고르지 못하면 國家가 흔들리고

가정이 不和하며 個人自體에 있어서도 身體上에 음양이 고르지 못하면 病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동방에서 일찍부터 調和의 철학이 발달한 것은 음양사상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中東의 一神的 宗教思想은 유목생활의 필요상 어쩔 수 없이 集團的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목생활은 개인적 자유보다 集團의 안전이 더 중요시되고 집단의 안전은 그 집단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만 보장된다. 中東의 종교는 現世를 떠나 來世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現世에서 살아 남기 위한 방편으로도 되어 자연에 도전하고 인근의 적대집단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집단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의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의 권위가 絶對神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그 지도자의 명령에는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유목민족으로서 一神敎를 창설한 유대민족의 사상이 그 전형을 이룬다.

유대민족은 그들의 민족신 『여호와』 신을 唯一神으로 믿으며 他神의 숭배를 거부하는 배타성이 강하다. 부족의 행동기준은 인간들의 의사보다 신의 啓示가 중요하며 신의 계시를 전하는 司祭者가 곧 統治者이다. 사람은 神의 啓示를 따를 뿐이므로 유목생활에 있어서 神의 啓示는 絶對的이다.

유대민족은 神의 啓示라는 이름으로 다른 견해를 배척하는 神學的 獨斷性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西方의 상업주의 생활양식은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自然이나 集團보다도 장사를 할 수 있는 個人이다. 장사하는 상대의 개인은 농사하는 상대의 개인과는 다르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개인 한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어낼 수가 없다. 특히 농사는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때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 내에 농사일을 맞추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대하는 개인은 같이 협동하여 농사를 짓는 同志로 그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농사가 잘되면 나와 남이 다같이 이익을 보는 것이요 농사가 잘못되면 나와 남이 다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상호 협조적이고 상생관계이고 공존관계이다. 마치 음양이 서로 어울리는 것같은 조화의 관계이다. 그런데 상업상의 대인관계는 서로가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다. 한쪽

은 비싸게 팔려하고 한쪽은 싸게 사려한다. 내가 이익을 얻는 만큼 상대방은 소해를 보는 것이요 내가 손해를 보면 상대방은 이익을 보게 되어 나와 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요즘 흔히 말하는 제로섬(Zero sum)게임이다. 이것은 인간의 독립성과 인간의 영리성 인간의 경쟁성에서 온다. 농경생활에서는 인간은 독립적 존재라기 보다 다른 사람과의 依存的 存在이다. 가령 가족을 예로 들면 西方에서는 그 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지만 동방에서는 가족과 가족의 관계가 중요시된다. 서방에서는 그저 「아무개」가 주요하지만 동방에서는 그저 「아무개」보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손자」와 같이 가족공동체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적인 連帶的 人間관계 즉 人倫이 중요시된다.

西方의 개인적 생활과 東方의 人倫的 생활을 論理化한 것이 辨證法과 陰陽사상이다.

고대 희랍에서 발달된 변증법(Dialektik)은 원래 問答이라는 의미였다. 그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해 발달되고 中世 스콜라 철학 칸트 등을 거쳐 헤에겔 철학에 이르러 大成되었다. 觀念論者인 헤에겔은 변증법을 인식과 존재에 있어서의 動的인 發展 法則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定立(these) 反定立(anti-these) 綜合(syn-these)으로 圖式化하였다. 헤에겔의 변증법의 요점은 그 否定사상에 있다. 어떤 定立은 반드시 그 반대되는 反定立과 대립된다. 그래서 定立은 反定立에 의해서 否定된다. 그런데 否定된 反定立은 또다른 反對에 부딪쳐 否定되고 定立도 反定立도 아닌 새로운 綜合으로 止揚된다는 것이다. 헤에겔의 이같은 觀念辨證法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唯物辨證法으로 반전된다. 마르크스는 헤에겔의 觀念的인 것을 物質的 現象의 世界로 바꾸어 놓고 現象世界의 矛盾은 오직 투쟁으로만 解決할 수 있다는 투쟁철학으로 발전시켰다.

변증법은 전통적인 形式論理學의 三大原理인 同一律 矛盾律 排中律과 더불어 現代 사상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데 東洋사상은 辨證法 대신에 陰陽사상을 가지고 있고 同一律 矛盾律 排中律 대신에 不二思想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同一律은 「甲은 甲이다」요 矛盾律은 「甲은 非甲이 아니다」요 排中律은

「甲은 甲도 非甲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일관된 정신은 否定이다. 그런데 陰陽사상은 결코 否定의 論理가 아니라 肯定의 論理이다. 個人中心的인 思考에서는 나와 너는 對立的이요 어느 하나가 否定되어야만 어느 하나가 존재할 수 있지만 人倫中心的인 陰陽사상에서는 나와 너는 對立的이 아니라 共存的이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존재할 수 없는 相補 相生의 관계이다.

陰陽사상은 본래 陰은 陽을 위하여 존재하고 陽은 陰을 위하여 존재하는 爲他的存在이다. 陰이나 陽만으로는 存在할 수 없는 必然的 關聯性속의 존재이다.

또 萬物을 분석하여 個別的으로만 보는 거기에 個個物의 對立이 보이지만 綜合하여 全體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個個物의 對立은 없고 全體가 서로 相補하는 관계에 있다. 가령 人體를 예로 들어보자. 人體는 여러 機關으로 구성되어 있다. 눈은 눈이요 입은 입이어서 각각 별개의 존재이다. 그러나 人身全體를 보면 눈은 全體를 위해 보는 것이요 입은 全體를 위하여 먹는 것으로 각각 몸의 일부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더군다나 눈이 보고 입이 먹는 것은 눈이나 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눈은 입을 위하여 보고 입은 눈을 위하여 먹으니 눈과 입의 이해관계가 일치될지언정 결코 반대 될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눈과 입이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다르지 않은 것이니 佛敎에서는 이것은 不二사상이라고 한다.

東方사상의 陰陽사상은 西方의 辨證法과 전연 다른 風土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思想은 自然環境인 風土에 적응하는 生活樣式에서 발생하지만 人類가 서로 왕래하면서 자기 風土에서 자라지 않고 자기와 다른 風土에서 자라는 사상까지 받아들여 우리의 사상이 풍부해졌다. 우리가 東方의 陰陽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으로 西方의 辨證法사상을 排擊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辨證法사상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西方人들도 陰陽사상을 받아들여 人類의 지혜를 더욱 높히자는데 있다. 日本의 西田幾太郎은 佛敎의 禪의 사상을 研究하면서 그것을 西方의 辨證法사상과 연계시켜 絶對辨證法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도 우리 陰陽사상을 辨證法的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IV. 陰陽사상의 特性

동방의 고대인이 自然을 관찰한 결과 위선 氣象現象의 明暗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낮과 밤의 明暗현상은 물론이요 같은 낮에도 太陽이 비치는 밝은 때와 구름이 太陽을 가려서 어두운 때가 있고 天地現象과 人間 現象 모든 것에 이와 같이 對偶的인 明暗現象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陰陽이라 일컫고 이 陰陽이 天地萬物의 기본적 運轉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陰陽이라는 글과는 「𠄎」(언덕부, 山을 의미한다) 변에 「陰」자와 「易」자로 合成되어 있다. 陰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모양이요 易은 태양이 밝게 비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陰(그늘 음) 陽(별 양)의 글자가 이루어졌다. 고대인들은 陰陽現想이 固定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陰陽현상이 늘 變化하는 것을 보았고 그 變化하는 가운데에도 일종의 法則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와 같은 自然의 變化 現象을 파악하여 變化의 뜻을 의미하는 「易」자를 써서 易經을 성립시켰다.

孔子는 그 易經을 해석하여 「一陰一陽 이것을 道라고 한다고 하고 이를 生成시키는 것이 易이라고 한다」고 했다. (繫辭上傳)

陰陽에 관한 연구가 깊어감에 따라 陰陽이 變化하는 것은 陰陽속에 내포되어 있는 「氣」의 작용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氣가 陰陽의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氣라는 글자는 「气」와 「米」의 합성으로 이 「气」는 공기가 유동하는 모양을 본뜬 것이요 「米」는 동서남북 상하좌우의 八方에 가득 찼다는 뜻과 농경 민족의 주식 곡물인 쌀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气」는 天地간의 運轉하는 정신현상을 의미하고 「米」는 八方에 찬 물질을 의미하여 「氣」는 우주의 궁극적 존재로 만물생성의 정신적 물질적 본체로 생각하였다.

氣 理論은 본래 道家에서 많이 다뤄졌다. 老子的 道德經에는 「道는 一을 生하고 一은 二를 生하고 二는 三을 生하고 三은 만물을 生한다. 만물은

陰을 負하고 陽을 抱하며 中氣로의 和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는 氣의 生成 發展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또 莊者도 天地의 一氣 陰陽의 氣등 氣에 관한 용어가 많은데 이로써 氣를 우주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氣一元論的인 道家사상에 있어서는 우주의 본질은 氣요 그 氣는 정신적인 동시에 물질적 존재로 陰陽의 두작용을 가지고 그 물질적 結晶은 「精」이요 정신적 결정은 「神」이라고 했다. 일찍부터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그것을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던 西方사상에서는 自然과 人間과 社會를 별개로 보았으나 東方에서는 天地人 一體 즉 自然과 社會와 人間이 一氣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했다. 또 西方人들이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데 대해 정신과 물질도 같은 氣의 작용으로 보아 觀念論과 唯物論의 對立을 초월하여 唯氣論적 사상을 갖게 되었다.

唯氣論的인 道家사상에 대해 儒家 특히 性理學에서는 理라는 것을 궁극적 존재론 보고 理氣哲學을 전개했다. 道家에서 정신과 물질의 근원적 존재로 보는 氣를 性理學에서는 다만 形而下的인 物質的 存在에 불과하고 形而上的인 精神的 存在의 근원으로서는 理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理氣二元論인 理와 氣 어느 것에 중점을 두었냐에 따라 主理論과 主氣論으로 갈라졌다. 朱子는 主理學派요 張橫渠는 主氣學派의 대표자이다.

우리 나라에도 李退溪는 主理學派요 徐花潭은 主氣學派다.

主氣學派인 李栗谷은 二元的 一元論을 주장하여 理氣는 본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선후가 없는 二物도 一物도 아닌 非一非二物로서 서로가 떠나기 어려운 妙合的 존재로서 理通氣局說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理는 氣의 主宰요 氣는 理가 그것을 타는 것이므로 理가 아니면 氣가 존재할 데가 없고 氣가 아니면 理가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理氣는 二物이되 一物이요 一物이되 二物이라고 하였다.

栗谷의 理氣에 관해 非一非二的 妙合物이라고 주장한 것은 陰陽關係를 설명하는데 에도 들어맞아 이것도 일종의 不二사상이다.

우리 나라의 花潭이 일찍부터 氣一元論을 주장한바 있고 栗谷에 이르러 理氣哲學에서도 主氣論에 기울어졌다. 鹿門 任聖周가 唯氣論을 주장했는데

實學者 丁茶山과 경험론자 惠岡 (崔漢綺)도 唯氣論으로 기울었다. 茶山은 理(太極)가 형이하학적인 氣(陰陽)속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가시적인 氣는 인정하나 선험적인 理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理를 부인하고 氣만을 인정했다. 또 惠岡은 神氣論을 주장하여 하늘의 神氣와 사람의 神氣는 본시 하나이며 神은 氣의 精華요 氣는 神의 氣質이며 神氣는 知覺의 主體요 氣의 통로는 感覺기관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氣사상은 道家에서만이 아니라 儒家에서도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은 古代 檀君說話에서부터 다분히 道家的 요소가 엿보일 뿐아니라 新羅의 花郎道 高麗의 八關會등도 道家的 요소가 깊고 朝鮮시대의 巫俗등도 道家的 性向이 있다. 조선조 말기에 西學이 들어옴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主體的 自覺으로 생긴 新宗教인 東學도 다분히 道家的이다. 그러므로 新宗教의 중심사상은 氣 사상이었다. 東學을 일으킨 崔水雲은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 不忘萬事知」의 呪文에 들어 나 있듯이 至氣를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로 보았고 姜甌山도 水雲의 呪文을 祈禱呪라고 하여 중요시 한 것을 보면 그 至氣 사상을 이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甌山이 대단히 중요시 한 太乙呪의 「咩咩 咩咩 太乙 天上元君 咩理咩嘢都來 咩理 娑婆河」의 흠치의 「흠」은 숨을 들이킨다는 뜻이요 「치」는 숨을 내쉰다는 뜻인데 숨은 곧 氣이요 흠치는 곧 氣의 呼吸作用의 기초적 形態다. 그러므로 증산 사상의 기초도 氣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易學의 이론에 의하면 氣의 始原은 無極이요 그 無極은 곧 太極이며 太極은 陰陽으로 大巡하여 天地萬物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氣가 陰陽으로 大巡하는 法則이 天地度數이다. 陰陽이 正陰正陽을 이루어 度數에 맞추어 天下를 大巡하면 陰陽이 合德하여 天地가 平安하고 社會가 平安하고 人間이 平安하나 陰陽이 正陰正陽을 이루지 못하고 度數에 어긋나면 陰陽이 合德이 되지 못하고 天下大巡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典經 教法 1장 2절에 「天地間에 찬건이 神이니 풀입하나라도 神이 떠나면 마르고 흠바른 벽이라도 神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하나 드는 것도 神이 들어서 되나니라」의 「神」이나 典經 教運 1장 66절에 「天地之中央心

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의 「心」을 모두 氣의 形而上學的 형태를 말한 것이므로 증산의 사상도 水雲의 사상과 같이 唯氣論的 陰陽사상이다.

典經 教運 1장 9절에 「神道の 權威가 떨어지고 三界가 混亂하여 天道나 人事가 度數를 어김으로 元始의 모든 神·聖·佛·菩薩이 會集하여 人類와 神明界의 큰 却厄을 九天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三界를 둘러보고 天下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처 母岳山 金山寺 三層塔 彌勤金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崔濟愚에게 濟世大道를 啓示하였으되 濟愚가 能히 儒敎의 전헌을 넘어 大道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甲子年에 드디어 天命과 神敎를 거두고 辛未年에 世上에 내려 왔노라」의 大巡사상도 氣가 天地人 三才를 貫通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陰陽사상의 특색은 사물을 巨視的 全體的으로 보아 그 有機的 關聯性을 강조하는데 있다. 中東의 沙漠지대의 遊牧社會의 唯一神的 獨斷性과 달리 언제든지 나와 남을 같이 의식하는 사상이요 西方의 海洋지대의 商業社會의 多樣的 對立性과 달리 언제든지 相對方과의 協力과 一致를 의식하는 東方의 季節風지대의 農耕社會의 汎神論的 共存사상이다. 陰陽사상은 他者를 배격한다든지 또는 他者와 경쟁하는 것으로는 存在할 수 없고 오직 他者와 合德하여 一體가 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共存사상이다. 陰陽은 自立的 存在가 아니라 서로 爲他的 存在이다.

V. 陰陽合德의 天地人的 展開

1. 自然的 展開

天地宇宙의 自然은 正陰正陽을 이루어야만 合德이 되고 合德이 되어야만 度數에 따른다. 陰陽이 合德하지 못하고 따로 따로 논다던지 또는 正陰正陽이 아니고 陰陽 어느쪽에 過不足이 있으면 陰陽은 不德이 되어 度數들어가고 大巡을 이루지 못한다.

宇宙에 차 있는 陰陽의 氣는 곧 神氣이다. 그 神氣가 和合하지 못하면 宇宙運行이 어지러워 天變地異가 생긴다. 宇宙는 天文學的 法則 대로 움직

이는데 여기에 원한을 품은 神氣가 있으면 陰陽合德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宇宙의 陰陽合德이 이루어지려면 宇宙에 和氣가 차있어야하고 和氣가 차있으려면 怨氣가 없어야 한다. 그 宇宙의 怨氣를 풀어 宇宙의 陰陽合德이 이루어지려면 늘 天地의 度數를 지켜야하고 天地의 度數를 지키려면 먼저 人間의 마음속의 怨氣를 풀어야 한다. 마음속의 怨氣를 풀고 和氣를 되찾는 방법이 修道하는 것이다.

修道하는데 있어서도 그 場所의 自然的 條件이 중요하다.

風水사상에 있어서의 名堂이나 環境이론에 있어서의 快適한 場所는 그 地勢가 陰陽合德이 되어 있어야 한다. 陰氣만 세고 陽氣가 약하다던지 반대로 陽氣만 세고 陰氣가 약한 장소는 陰陽不德한 곳이므로 그곳은 피해야 한다. 陰陽이 조화를 이루어 合德을 이룬 곳은 名堂인데 名堂은 陰陽合德이 自然的으로 전개되는 곳이다.

2. 社會的 展開

陰陽이 天氣로 展開되는 것이 自然現象이요 地氣로 展開되는 것이 社會現象이요 人氣로 展開되는 것이 人間現象이다. 自然現象은 宇宙現象이요 社會現象은 地球現象이요 人間現象은 心理現象이다.

人間은 날 때부터 自然과 社會에 연계되어 있어 自然과 社會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西方의 個人主義사상에 있어서는 社會는 다만 個人的 集合體에 不過하고 中東의 集團主義사상에 있어서는 社會가 實在하고 個人은 社會의 構成部門에 不過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陰陽合德사상에 있어서는 個人과 社會는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不二의 存在로서 個人이 없으면 社會도 없고 社會가 없으면 個人도 없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에 있다. 그것이 바로 陰陽合德의 人倫社會이다.

人倫은 陰陽合德關係이다. 人倫의 기본적인 原型은 家庭이다. 家庭은 正陰正陽으로 이루어져 夫婦와 親子와 兄弟와 父母關係가 合德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家庭倫理가 個人倫理 社會倫理 國家倫理 人類倫理의 기본이 되어 平和를 이룬다. 東方에서 三綱五倫이나 忠孝를 倫理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家庭倫理가 가장 自然스러워 宇宙의 原理에도 맞고 人間의 心理에도

適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協同的인 農耕社會를 유지하는 기본 倫理이다.

陰陽合德은 正陰正陽이라야 한다. 그런데 본래 陰陽의 原理에 의하여 구성된 儒敎倫理가 封建的인 男性支配로 變質되어 男性을 優位로 생각하고 女性을 男性의 下位로 생각하게 되었다. 三綱中의 하나인 夫爲婦綱이나 五倫中의 하나인 夫婦有別을 잘못 해석하여 「綱」자나 「別」자가 마치 男性을 主로하고 女性을 從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겼으나 이는 主從관계가 아니라 平等관계로 다만 그 작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天地人 三才에 있어서 天이 높고 地가 그 다음이요 人이 낮은 것은 아니고 天地人이 一體가 되어 그 中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 것이 없듯이 男女관계도 이와 같다. 그런데 天地人 사상과 陰陽사상에 있어서 天이 높고 人이 낮으며 陽이 높고 陰이 낮은 것 생각하기 쉽다. 天은 높은 곳에 있고 地는 낮은 곳에 있으며 陽은 위로 향하고 陰은 아래로 향하여 그것이 높고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만 天地와 陰陽의 기능과 작용의 차이일 뿐 그 가치에 있어서의 高低는 아니다. 陰陽이상은 主從이나 高下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가 같기 때문에 合德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가치가 다르면 그 合德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증산은 天尊과 地尊보다 人尊이 더 크다 (典經 2장 56절) 고하고 男尊女卑사상을 타파하여 그 동안 男性에게 억눌리던 女性을 해방하여 正陰正陽사상으로 돌려냈다.

陰陽合德으로 이루어진 東方의 家庭에 비해 中東의 集團사상이나 西方의 個人사상에서는 陰陽合德 보다 陰陽不德이 많다. 集團主義에서는 集團의 힘이 너무 강하고 個人主義에서는 個人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모두 過不足으로 調和가 깨진다. 東方의 家族倫理는 自然에 順應하고 人性에 適습하도록 되어있어 그것을 社會全體의 倫理로 확장시키고 있다.

가정은 夫婦가 正陰正陽으로 合德하는 가장 기본적인 社會단위인데 이것이 확대된 것이 社會共同體나 國家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陰陽合德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社會를 階級의 對立으로 본다든지 國家를 權力支配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社會도 國家도 陰陽合德 관계로 보아야 한다. 地域社會나 學校나 職場에서 上位者와 下位者 敎師나 學生 上司와 部下의 관계나 國家에서 國家機

關과 國民의 關係가 對立的이 아니고 陰陽合德을 이루면 거기에 분쟁이 있을 수 없다.

3. 人間的 展開

陰陽合德사상은 自然의 원리이요 社會의 原理인 동시에 人間의 原理이기도 하다. 人間에 있어서도 陰氣와 陽氣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身體가 健康하고 마음이 健康하다. 身體에 陰陽이 고르지 못하면 病이 생긴다. 病은 陰陽이 不調하고 陰陽이 不德한데서 온다. 東方醫學에서는 「補瀉」의 이론이 있는데 補는 不足한 것을 補完하는 것이요 瀉는 過剩한 것을 捨去한다는 뜻이다. 陰陽은 언제든지 同價로 있어서 正陰正陽이 되고 同價이기 때문에 合德이 된다. 만일 陰이 4이고 陽이 6이면 陰에게 1을 補하고 陽에서 1을 瀉하여 同價인 5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東洋醫學이다.

身體에 있어서만 陰陽合德을 이룰 뿐아니라 精神에 있어서도 陰陽合德이 이루어져야 한다.

心中에 戚이나 恨이 있으면 正陰正陽의 상태가 아니다. 戚을 없애고 恨을 풀어서 正陰正陽으로 돌아가야 한다.

人間의 身體的 虛弱이나 心理的 不安은 모두 陰陽不德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陰陽合德이 이루어지도록 修道해야만 한다. 人間에 있어서의 陰陽合德은 人間에 있어서만 이루어질 뿐 아니라 社會的 次元에서도 自然的 次元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陰陽合德은 天地人 全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自然과 社會와 人間은 모두 一氣의 大巡으로 이루어지는 陰陽現象이기 때문이다.

VI. 陰陽合德사상의 現代的 意義

1. 觀念論과 唯物論의 調和

西方에서 플라톤 platon(427~347 B. C.)이래 전승되어온 觀念論과 데모크리토스 Demarcators(460~360 B. C.) 이래 전승되어온 唯物論의 對立은 헤에겔과 마르크스가 觀念史觀과 唯物史觀으로 발전시킨이래 단순히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넘어서 정치적 대립을 갖어와서 冷戰까지 일으켰다. 唯物史觀에 입각한 共產主義가 붕괴하였지만 그렇다고 共產主義와 對立되는 資本主義가 승리한 것도 아니다. 共產主義의 몰락을 「歷史의 終焉」으로 보는 이도 있지만 資本主義의 병폐도 적지 않기 때문에 觀念論과 唯物論에 대치되는 새로운 사상을 대망하는 소리가 높다. 말하자면 歷史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歷史의 始作」을 보아야 할 때다. 그 觀念論과 唯物論의 對立을 해결하는 하나의 代案으로 東方의 陰陽사상이 有用할지도 모른다.

唯物論者중에는 東洋의 氣사상을 唯物論적으로 해석하고 氣를 순물질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氣사상의 진수는 道家사상에 있다고 보이므로 氣사상은 어디까지나 精神과 物質을 다같이 포함하고 있는 不二사상인 精神 物質同元論의 입장이지 결코 물질이나 관념의 일방적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大巡사상의 중요 골자를 이루는 陰陽合德사상이 바로 精神物質同元論의 氣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2. 對立투쟁관의 지양

20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對立투쟁의 시대요 전쟁의 세기였다. 앞으로 맞이할 21세기를 또다시 對立투쟁이나 전쟁의 세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협동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陰陽合德사상이다.

對立투쟁의 사상적 근거는 辨證法이다. 辨證法은 對立의 원리요 투쟁의 원리요 否定의 원리다. 그러나 陰陽사상은 陰氣陽氣가 서로 補完하고 서로

協同하고 相生하는 共存사상이다. 西洋의 個人主義에서 발생한 對立사상은 다윈(Darwin 1809-82)의 進化론에서 適者生存사상이 강조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生物界가 반드시 對立투쟁적인 것만이 아니고 相互扶助的이라는 것은 이미 코로포트킨(Kropotkin 1842-1921)이 밝힌바 있다. 그러나 東方에서는 太極陰陽사상으로 萬物이 相生的으로 共存하는 原理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한 東方의 전통사상의 기반 위에 西方사상의 장점을 따서 東學사상과 증산사상과 太巡사상이 形成되었다.

人類뿐만 아니라 모든 生物은 본래 착하고 平和的이다. 平和的 本性을 다시 찾을 때 地球뿐만 아니라 宇宙全體가 平安하게 될 것이다.

이제 人類가 새로운 歷史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상의 定立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人類를 지배하던 對立的 투쟁적 사상에 대신하여 조화적 平和的 사상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陰陽合德사상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사상이라할 지라도 모든 것을 否定하는데서 찾을 수는 없다. 陰陽이 共存하듯 옛사상의 장점은 물려받고 그 결점을 버리면서 새로운 사상을 形成시키는데 이런 의미에서 辨證法사상도 취할 점은 취해야 할 것이다. 東方의 陰陽合德사상이 西方의 辨證法사상을 어떻게 消化하느냐 또는 西方의 辨證法사상이 東方의 陰陽合德사상을 어떻게 消化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人類가 풀어야할 重要課題가 아닐 수 없다.